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REINCARNATION BLUES

가제 : 1만 번의 환생

저자 : Michael Poore

출판사: Del Rey Books/Random house

발행일: 2017년 가을

분량 : 442 페이지

장르 : 소설



스페인 Malpaso, 터키 Domingo, 이탈리아 Edizioni 와 10일 안에 판권 계약 완료!

9995번 환생한 남자와 함께 찾는 인생의 의미

마일로의 9,995번째 삶은 플로리다 해안에서 충성스러운 개와 함께 사는 50대 남자의 인생이었다. 해뜨기 전에 잠이 깨면 해변으로 어기적어기적 나가 푸르른 바다를 보며 아침밥으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보드라운 모래사장에 쓰러져 다시 잠이 들곤 했다. 폭 자고 일어나 항구 쪽으로 가면 제법 맛있는 낚시 배가 기다리고 있다. 그날그날 내키는 대로, 마일로는 두 가지 직업 중에 하고 싶은 일을 했다. 하나는 배를 타고 바다 멀리 나가서 잡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낚아 오는 어부의 일이고 또 다른 직업은 낚시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을 태우고 오후에 몇 시간 동안 바다 곳곳을 돌아다니는 일종의 투어 가이드다. 9,995번째로 부활해서 이렇게 살던 삶이 끝이 난 그 날, 마일로는 혼자 조용히 낚시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광객 티가 짙은 남자가 다가왔다. 오늘 투어는 곤란하다는 마일로의 완곡한 거절에도 카펫 파는 일을 한다는 그 남자는 한사코 배를 타고 싶어 했다. 하는 수 없이 그를 태우고 마일로는 먼 바다로 나아갔다. 사실 마일로의 배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정말로 낚시 투어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 바로 인생 상담이다. 그 동안 마일로는 1만 번 가까이 부활하며 다양한 생을 살다 보니 삶의 지혜가 쌓일 수 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어떤 심각한 고민을 꺼내 놓든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먼 거리도 마다 않고 플로리다까지 내려와 그의 낚시 배에 몸을 실었다. 이 날도 카펫 파는 남자는 마일로와 나란히 낚시 대 앞에 앉아 불행한 결혼생활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고 아주 단순하지만 좋은 해결책을 얻었다. 이 상담을 마지막으로, 그날 저녁 마일로는 밤 수영을 나갔다가 상어에게 잡아 먹혀 9,995번째 죽음을 맞았다.

영혼의 완성, 생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진짜 목표는? 사랑의 의미를 찾기 위한 5번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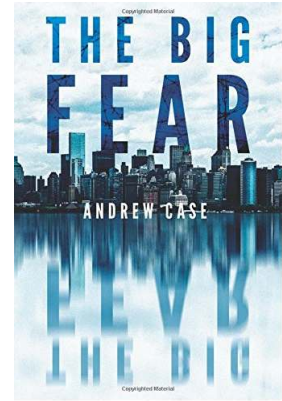
마일로는 술한 죽음을 맞으면서도 눈 깜짝할 새 숨을 거두는, 아주 운 좋은 죽음은 딱 한 번 밖에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철근에 즉사했을 때로, 마일로는 사후세계에서 정신을 차리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하고 물어보아야 했다. 1만 번에 가까운 죽음은 제각기 다른 형태로 찾아왔다. 비슷한 상황도 없었다. 언제 죽을 지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섯 번 정도로, 처형을 당해 죽었을 때였다. 스페인에서 화형을 당했을 때, 중국에서 단두대에 올랐을 때, 수단에서 밧줄에 목을 매는 형벌을 받았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가스실에 들어가야 했을 때... 하지만 미리 알건 모르건, 죽음이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다. 숨이 끊어지면, 살아 생전과 똑같은 모습을 한 영혼이 어느 강가에서 깨어난다. 이번에도 강가에서 정신이 든 마일로의 영혼 곁에 까만 머리를 늘어뜨린 ‘데스’가 다리를 양전히 포개고 앉아 있었다. 9,995번째 죽음, 상어에 잡아 먹힌 그 경험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서 깨어난 후에도 느낌이 생생했다. 데스라는 본명보다 수지라 불리기를 좋아하는 사후세계의 안내자와는 죽어야 만날 수 있다. 만 번 가까이 부활하는 동안, 마일로도 초창기에는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보려는 욕심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활이 지겨워지자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가능한 모든 삶을 다 살아보리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번에, 상어에 먹혀서 죽은 마일로는 처음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부활의 기회가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으며, 이제 남은 기회는 단 5회뿐이라는 사실이었다. 1만 번 부활할 때까지 완벽한 영혼이 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영원히 소멸하고 만다. 이제 남은 기회를 절대 허투루 쓸 수 없음을 깨달은 마일로는 데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한다.

수없이 부활하는 남자, 마일로의 인생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대 인도부터 세계 곳곳의 식민지, 우주에도 마음대로 드나드는 미래 사회에서도 펼쳐진다. 때로는 선한 사람으로, 때로는 더 없이 못된 악당으로 살다가 메뚜기, 나무로 태어나기도 하는 각양각색 다채로운 삶 속에서 그는 무엇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는지 고민하고, 주어진 생에서 인간이 진정 성취해야 하는 것과 온전한 사랑의 의미를 서서히 배워간다.

<저자 소개>

마이클 푸어(Michael Poore)는 2009년 「Southern Review」, 「Carolina Quarterly」 등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2009년에는 “Blood Dauber”라는 제목의 글로 스테이션 상(Sturgeon Award) 후보에 올랐고 2011년에는 푸시카트 상(Pushcart Prize) 후보로 선정됐다. 2012년 데뷔 소설로 『Up Jumps the Devil』를 발표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제목 : THE BIG FEAR
가제 : 거대한 공포
저자 : Andrew Case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6년 4월 1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소설



유능한 형사에서 동료로 죽인 살인자가 된 남자,쓰레기보다 더한 악취를 풍기는 교활한 범죄자들

뉴욕 경찰인 랄프 물리노는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항구 쪽으로 순찰을 나갔다. 수상한 배 한 척이 정박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직접 확인을 해야 했다. 24년 동안 경찰 일을 놓은 적이 없는 베테랑 형사인 그는 얼마 전 조금 편해질 줄 알고 조직범죄관리부서로 팀을 옮겼다. 수시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삶에서 벗어나 은밀하게 설치해둔 도청 장치에나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건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누가 목격한 가방을 수상한 자에게 건네더라는 신고부터 철없는 십대 청소년들이 광장에 모여 나쁜 짓을 저지른다는 신고까지 조직범죄관리부로 할당되는 신고 건수도 만만치 않아 현장에 나갈 일이 많은 건 매한가지였다. 그 날도 한밤중에 항구로 향하면서, 물리노는 다른 친구들은 이 나이쯤 되면 매달 연금을 꼬박꼬박 받으면서 해변에 누워 놓고 쉬면서 보낼 때, 아직도 자신은 호출기 소리에 단잠을 깨며 살아야 하는 처지라는 생각에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신고가 들어온 배는 닻을 내린 채 컴컴한 항구 한 쪽에 서 있는 화물선이었다. 물리노가 바로 옆까지 다가가도 일단 바깥에서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선체에 달린 사다리로 갑판까지 올라가자, 희미한 달빛 아래 두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좀 더 가까이 가니 한 명은 이미 피를 잔뜩 흘린 채 쓰러져 죽은 상태였다. 그런데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다른 한 명은 물러서라는 물리노의 경고에도 무장을 풀지 않더니, 순식간에 달아나기 시작했다. 물리노 형사는 쏠살같이 달아나는 남자를 뒤쫓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자 달아나던 남자가 갑자기 물리노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총성이 울리고, 물리노 역시 그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상대가 쏜 총알은 형사의 머리 옆을 스치며 아슬아슬하게 비껴갔고, 귀를 타고 흐르는 피와 타는 듯한 통증에 잠시 쓰러졌던 물리노는 자신의 총을 맞고 쓰러진 남자 쪽으로 다가갔다. 가슴이 피범벅이 된 남자는 즉사한 상태. 그 옆에는 총이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손전등으로 비추던 중, 남자의 가슴팍에서 무언가가 익숙한 것이 빛났다. 물리노 형사가 누구보다 잘 아는 모양의 배지와 함께 주머니 안에서 네모난 명찰 귀퉁이가 보였다. 방금 전 그가 쏜 사람은 다름아닌 뉴욕 경찰이었다.

화려한 도시 내부를 새카맣게 오염시킨 부정부패의 고리, 부패의 핵심을 파고드는 두 베테랑

동료 형사인 브라이언을 범죄자로 오인하고 쏘아버린 물리노 형사의 사건은 뉴욕 시민 불안감

토위원회가 조사를 맡는다. 이곳의 부정부패 조사부 소속 레오나드 미첼은 유일한 상관이던 조사부장 크리스틴이 느닷없이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임시 부장이 되어 물리노 형사 사건을 떠맡았다. ‘임시’라는 말을 떼어 내고 크리스틴의 자리에 완전히 오르려면 이 첫 사건을 잘 해결해야만 한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공무원 신분을 과감히 버리고 민간 업체에 바로 출근할 예정이라던 크리스틴이 익사한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크리스틴은 물리노 형사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밤, 어떤 배에 타고 있다가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 회사에 출근한 첫 날 크리스틴이 미심쩍을 정도로 철저하게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는 증거도 나왔다. 미첼은 물리노 형사 사건이 그저 무능력한 경찰이 저지른 실수가 아님을 직감하고, 조사를 이어갈수록 크리스틴의 죽음과 물리노 형사의 사건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한편,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홀로 사투를 벌이던 물리노 형사는 미첼과 자신이 동일 인물들, 동일한 조직을 표적에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쩔 수 없이 파트너가 된 두 사람은 불편한 협력을 시작한다.

베일에 싸인 두 사건의 저변에는 뉴욕 시 전체를 더러운 탐욕으로 감염시킨 무리가 도사리고 있고, 그 진실이 하나 둘 고개를 내밀수록 미첼과 물리노가 감당해야 할 대가도 엄청나게 커져간다. 급기야 미첼은 귀가 길에 순찰 중 인줄 알았던 경찰에게 흠뻑 두들겨맞고 병원으로 가는 자신을 수상한 인물이 뒤를 밟고 있다는 사실까지 눈치챈다. 미첼은 경찰 내부에 흉악한 범죄 세력이 뿌리 끝까지,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을 체감한다.

점점 더 교활해지는 악당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고 정의를 수호하려는 사람은 몇 안 되는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자원을 차지한 집단과 모든 것을 걸고 맞서는 두 남자의 긴박한 싸움이 뉴욕 한복판에서 펼쳐진다.

<저자 소개>

앤드류 케이스(Andrew Case)는 연극 <The Electric Century>, <Pacific>, <The Rant> 등의 각본을 쓴 극작가로, 위 소설에 등장하는 미첼처럼 실제로 10년 가까이 뉴욕 시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조사관으로 일했다.

제목 : THIS IS HOW IT ALWAYS IS

가제 : 그럼 그렇지

저자 : Laurie Frankel

출판사: Flatiron Books

발행일: 2017년 4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내 아이가 트랜스젠더라면? 변화에 도전하는 자식을 보며 부모가 느끼는 감정들, 가족의 의미

로지와 펜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다. 둘의 관계는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장애도 없이, 물 흐르듯 다음 단계로 성큼성큼 진전됐다. 만나자마자 서로가 ‘운명의 상대’임을 알아본 둘은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했다. 가족이 된다는 것,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이 로지에게는 처음부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느껴졌다. 그렇게 아이를 넷이나, 그것도 모두 사내아이만 낳고 보니 하루 종일 정신차릴 틈도 없었다. 의사로 일하는 로지는 아이들 학교며 유치원 끝날 시간에 맞춰 혈레벌떡 아이를 데리러 가느니 병상에 가만히 누워 있는 환자들을 보는 편이 낫고 다른 의사들이 싫다고 손을 내젓는 응급실 근무도 난리법석 한 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집에 있는 것보다 편했다. 게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이웃들은 자꾸만 로지를 놀리고 비아냥거렸다. “다들 하나씩만 낳는 시대에 아이가 넷이라니?” 독실한 가톨릭이냐고 대뜸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로지가 의사인 걸 뻔히 알면서도 피임할 줄 모르냐며 갑자기 피임법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말 대단하시다”며 칭찬을 가장한 빈정거림을 날리는 여자들도 수두룩하다. 그래도 로지는 이 모든 편견이며 눈길을 씩씩하게 잘 견디며 살았다. 아무리 집안이 늘 시골시골하고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이 편해도, 아이들을 향한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심지어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해소되지 않은 욕심, 혹은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딸을 낳고 싶다는 생각, 예쁜 여자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펜과 로지 부부가 첫째 루를 낳았을 때는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에 떠들썩한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둘째 벤도 아들이었고, 꼭 딸을 낳고 싶었던 부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명만 더 낳기로 했다. 그런데 아뿔싸, 셋째는 하나가 아닌 둘이 태어났다. 라이젤과 오리온 쌍둥이가 로지네 가족에 합류한 것이다. 아이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지만, 그리고 네 명으로도 이제 출산은 그만할 법도 했지만 로지는 어떻게 하면 여자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지 틈틈히 인터넷을 뒤지곤 했다. 친정 엄마가 탈무드에 남편 침대가 북쪽을 향하면 아들을 갖는다고 머리맡이 남서쪽을 향하도록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연어와 초콜릿이 좋다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펜의 밥에만 몰래 연어를 잘게 썰어서 넣고 아이들처럼 초콜릿 쿠키를 먹여대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네 명이나 되는 사내아이로도 모자라 딸을 낳고 싶었던 부부, 그들에게 찾아온 특별한 막내 아이 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로지는 펜과 함께 인터넷에 떠도는 ‘딸 임신하는 방법’을 자꾸만 시도해보다가 정말로 덜컥 다섯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결과는? 그토록 고대하던 딸 대신 아들 하나가 더 늘었다. 막내아들 클라우드는 그렇게 태어났다.

클라우드는 이제 더 이상의 출산은 포기하고 다섯 아이나 잘 키우자고 마음 먹은 로지와 펜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그런데 막내는 어릴 때부터 형들과 전혀 다른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어쩌다 기다란 원피스를 처음 입어본 날, 클라우드는 치렁치렁한 치마가 불편하지도 않은지 한사코 벗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더니 급기야 학교에 핸드백을 매고 가고 싶다고 떼를 썼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싶다며 이발도 거부했다. 이름도 클라우드 대신 ‘파피’라 불러달라고 했다. 어떻게든 딸을 갖고 싶어했던 로지의 마음을 다 꺾은 것처럼, 파피는 남자아이라면 누구나 하는 행동들은 일체 하지 않고 소녀처럼 성장했다. 딸아이가 갑자기 바지만 입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축구팀에 들어가면 부모나 주변 사람들은 참 씩씩한 아이라고 좋아하지만, 남자아이가 치마를 입고 인형을 가지고 놀면 다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심각하게 걱정하는 세상에서, 그것도 남녀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주 보수적인 편에 속하는 미국 중부 내륙에서 그런 파피를 키우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아이에게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 결국 로지와 펜은 파피를 위해,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 자유로운 시애틀로 이사를 간다. 이곳에서는 파피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새로 사귄 사람들에게는 파피가 딸이라고 해야 할까 아들이라고 해야 할까? 부부는 파피를 키우면서 수많은 고민에 휩싸인다.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어날 때부터 몸과 정신의 성별이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털어 놓은 책들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그런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이 소설의 작가는 주인공 클라우드(파피)의 삶이 아닌 로지와 펜의 고민과 생각에 주목한다. 자식이 부모를 정할 수 없듯이 부모도 자식을 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가정의 겪는 혼란스러움과 갖가지 사건들, 감동적이고 가슴 아픈 순간들만큼 그 선택 불가능성이 낳은 결과가 깊고 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려고 도전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부모가 느끼는 감정들을 그린 이야기를 통해 늘 힘들지만 기적이 무엇인지 드러내어 보여주는 ‘변화’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느낄 수 있다.

<저자 소개>

로리 프랑켈(Laurie Frankel)은 시애틀에 살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데뷔 소설 『THE ATLAS OF LOVE』에 이어 2012년 발표한 두 번째 소설 『GOODBYE FOR NOW』는 해외 25개국에서 판매됐다.

제목 : THE STORYTELLER

가제 : 이야기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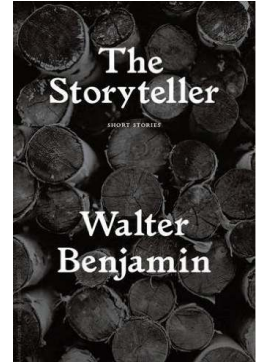
저자 : Walter Benjamin

출판사: Verso

발행일: 2016년 7월 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전설적인 사상가, 비평가, 번역가인 발터 벤야민이 남긴 기발하고 아름다운 단편소설 모음집

유대계 독일인인 발터 벤야민은 전설적인 문학평론가이자 철학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남긴 글들을 보면 평생을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탐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글을 쓰면서도 단편, 중편소설은 물론 우화, 설화, 농담, 수수께끼, 동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벤야민이 타인의 작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쓴 단편 소설과 채 완성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서 최초로 한꺼번에 정리됐다. 대다수가 실험적으로 쓴 작품들이지만, 그 속에는 나중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그의 남다른 비평과 분석에 밑거름이 된 아이디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간의 경험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야기’라는 형태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 주목했던 벤야민은 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야기가 구전되던 전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리고픈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책에 정리된 짙막한 이야기들로 그 참신한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벤야민이 남긴 문학적인 창작물이 모두 정리된 이 책은 이야기의 주제에 따라 ‘꿈의 세계’, ‘여행’, ‘놀이와 교육’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벤야민이 가장 초창기에 남긴 글들과 꿈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접할 수 있는 ‘꿈의 세계’에서는 고통 없는 세상을 그린 판타지적 소설과 함께, 현실의 고통을 그대로 비추기도 하지만 더 크게 부풀려서 눈 앞에 펼쳐 보이는 악몽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두 번째,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저 바다에서 이 바다로, 도시며 마을을 돌아다니는 외로운 여행자들이나, 낯선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로부터 얻은 경험을 독특한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벤야민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탐구한 현대 도시 생활의 성적인 긴장감 또한 이 여행자들과 방랑자들의 이야기 속에 녹아 있다. 세 번째 주제인 ‘놀이와 교육’은 벤야민이 주장한대로 왜 이 두 가지가 서로 얽혀 있는 관계일 수 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구성된다. 특히 단어를 가지고 놀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말은 자석 같아서 자꾸만 다른 말을 끌어 당긴다.’고 했던 벤야민의 생각을 뒷받침해준다. 도박을 본 따서 만든 놀이가 등장하는 단편 「The Lucky Hand」에서는 한 사람이 무언가를 모방하면서 습득한 지식의 가치와 함께 직관, 본능의 특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또 다른 단편 「On the Minute」은 새로운 기술을 처음 접하고 배우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꿈, 여행, 놀이와 교육이라는 주제에 담긴 구전 전통의 가치와 상상력이 만드는 놀라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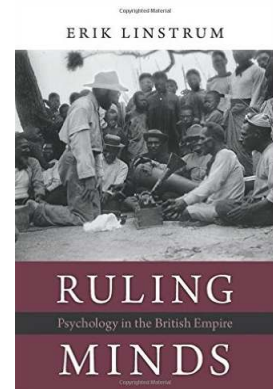
이처럼 벤야민이 쓴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한꺼번에 읽어 보면 그가 더 진지한 형태로, 즉 철학이나 비평과 같은 보다 학문적인 형태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전에 사전 준비 단계에서 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풍성하게 확장되어 갔는지 알 수 있다. 벤야민은 한 아버지가 땅을 일구는 일의 가치를 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밭 어딘가에 금이 숨겨져 있다고 거짓말을 하자 아들은 밭 이곳 저곳을 열심히 뒤적이고, 몇 개월 후에 진짜 보물인 곡식을 얻었다는 구전 동화에서 경험이 주는 깨달음의 가치를 인지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그 전통을 이어가고자 했다. 구전되는 이야기는 물론 카프카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남긴 작품도 나름의 방식으로 다시 상상하여 경험을 새로운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했다. 이 책에 정리된 벤자민 자신의 소설들은 운전수가 옆에 탄 승객에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야기나 우리가 살다가 겪은 놀라운 사건을 친구에게 전하는 이야기들과 많이 닮았다고 느낄 만큼 소소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속에 커져이 쌓인 세상에 대한 분석과 관점, 수수께끼가 숨어 있다.

<저자 소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독일 출신의 유대계 언어철학자, 번역가, 문학비평가로, 1919년 <독일낭만주의 비평개념>에 대한 연구로 베른 대학에서 최우등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신문과 잡지에 기고를 하거나 번역가로서 활동했다. 초현실주의를 비롯해 마르셀 프루스트, 베르톨트 브레히트, 프란츠 카프카, 카를 크라우스, 샤를 보들레르, 니콜라이 레스코프 등에 대한 글과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글들을 발표했다. 1940년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프랑스를 탈출하던 중 스페인 국경 통과가 좌절되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NON-FICTION

제목 : RULING MINDS
가제 : 지배의 심리학
저자 : Erik Linstrum
출판사: Harva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년 1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심리, 역사



대영제국이 거대한 통치체계의 도구로 활용한 심리학, 그 의존의 역사와 의도치 않은 결과들

솔로몬 제도에 사는 한 여성은 그 동안 밤에 어떤 꿈을 꿨는지 털어놓고, 인도 캘커타에서는 군인들이 적성검사를 받는다. 싱가포르에서는 반란을 꾀하다 잡힌 사람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하고, 우간다 캄팔라에서는 아기가 노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며 여러 사람이 지켜본다.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공간에서 벌어진 이 장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20세기 초,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지배했던 대영제국이 사람의 머릿속과 마음을 꿰뚫기 위해 애를 쓴 노력의 흔적이라는 사실이다. 세계 곳곳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을 지배해야 했던 제국 정부가 실제로 통치수단으로 심리학에 크게 의존했다는 사실이 수많은 자료로 입증된다. 저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다채로운 통치체계를 운영했던 대영제국이 사람들의 내적 삶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했고, 그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실험을 비롯해 심리분석, 정신기능 검사는 대영제국을 골치 아프게 만든 인종간의 계층 갈등 문제나 식민지배를 당하는 자와 지배하는 자의 관계에 뿌리 내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원인과 해결책을 파악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했다. 제국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들에게도 심리학은 더없이 소중한 도구였다. 공장과 군대가 순탄하게 굴러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찾고,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을 인재를 발굴하고, 식민지배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는 길을 심리학에서 모두 찾을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고조됐다. 심리학은 방대해진 영토만큼 끊이지 않던 정치적 문제에 기술적인 해법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인류학자부터 선교사, 정부 관계자, 교사, 산업자본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혹은 의도치 않았던 결과들이 무수히 뒤따랐다.

저자는 어떻게 심리학이 거대한 대영제국을 원만하게 통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열쇠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고, 그 희망을 단단히 붙들었던 제국의 통치자들이 열

마나 방대하게, 또 집중적으로 심리학 기술을 활용했는지 보여준다. 지능검사, 실험, 꿈 분석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개인이 지닌 능력을 파악하고 감정을 읽으려 했던 노력은 심리학이 인종, 나이, 성별, 사회적 수준과 상관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술이라는 허황된 믿음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어느 새 심리학은 제국의 가장 기본적인 통치 철학을 흔들기 시작했고, 지배의 근간이 된 주요 정책까지 심판하는 잣대가 되었다. 일부 실험은 식민지 사회에서 벌어진 중대한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저자는 제국 통치자들의 상상력을 무한히 자극했던 심리학이 영국의 제국주의 자체를 전복시키는 뿌리가 되어버린 패러독스의 역사를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과학적인 지식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에 도전장을 내민다. 대영제국이 심리학으로 얻으려 했던 급진적인 가능성과 식민지의 실상 사이에 빚어진 갈등에서 인간의 다양성을 보편화된 모형으로 단순하게 정리하려 했던 무모한 시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목차>

1부: 마음

1. 현장에서 나간 실험실: 제국주의적 심리학의 발명
2. 세계 꿈 사전: 무의식의 세계화

2부: 검사

3. 엘리트인가 지배 민족인가?: 대영제국과 지능검사의 기원
4. 적응하지 못하는 자, 적합하지 않은 자: 군대의 적성검사

3부: 전문가들

5. 감정과 생각의 진실: 전후 제국의 발전과 반란진압활동
6. 제국의 이면에서 바라본 심리학: 세계적인 지식, 그리고 식민시대 이후의 심리학

<저자 소개>

에릭 린스트럼(Erik Linstrum)은 버지니아 대학교에 역사학 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 UNEQUAL GAINS

가제 : 소득 불평등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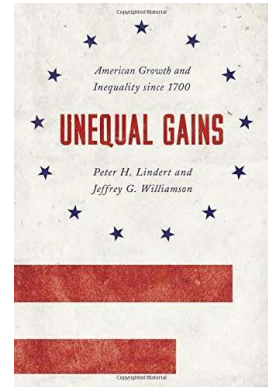
저자 : Peter. H. Lindert, Jeffrey G. Williamson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6년 4월 26일

분량 : 424 페이지

장르 : 경제, 역사



식민 시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일군 대대적인 경제 성장과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해석

미국 경제는 언제부터 풍요로웠을까?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시작됐을까?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국가 전체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국민들에게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내세웠지만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되는 주장은 찾기 힘들다. 미국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시점, 그토록 빠른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는 언제일까? 두 저자는 그 답을 찾고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6년간 연구한 끝에 얻어낸 놀랍고도 새로운 결론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미국은 20세기가 아닌 1700년 대부터 이미 소득 수준이 세계 최고 자리에 이미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 대륙에 처음 식민지를 건설한 초기 정착민들은 당시 영국보다 생활수준이 높았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기 훨씬 전에 풍요로운 생활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그 넉넉한 삶은 총 세 번에 걸쳐 격변을 맞이한다. 첫 번째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진된 독립혁명이고, 두 번째는 남북전쟁, 세 번째는 대공황이다. 두 저자는 이 세 차례의 위기에도 미국은 매번 되살아났고 그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평등’을 내세웠던 사회 구조가 소득수준이 극명히 갈리는 불평등한 사회로 변모해갔다고 설명한다. 특히 1774년부터 1860년에 한 차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두 번째로 불어닥친 거대한 사회적 변화는 전 세계 모든 부유한 국가들을 통틀어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 책은 봉합할 수 없을 만큼 급격히 벌어진 이 격차가 역사적으로 부유층부터 극빈층까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미국 경제의 역사를 참신하면서도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되짚어본다.

일반적인 견해처럼 현대사회에서 이루어진 경제적 성장은 불평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을까? 소득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까, 오히려 도움이 될까?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시원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던 질문이자, 현재 중요한 경제정책을 논의할 때 항상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이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의 소득 불평등 수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두 저자는 설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300년 전, 미국 땅에 처음 사회가 건설된 시기의 경제적 상황을 밝힌 자료들에서 확실한 증거를 발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20

세기 미국 경제에 관한 정보들도 다시 정리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통계청이 내놓은 소득 상위 1 퍼센트의 자료에 허술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오류가 밝혀진 많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소득 세는 1913년에야 도입되었으므로 그 시기 이전에는 국민 전체의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정확한 근거 없이 역사가들이 너도나도 내놓는 모호한 추측에 의존해야 했다. 이에 두 저자는 대부분의 경제 역사가들처럼 미국의 부에 초점을 두는 대신 소득을 중심에 두고, 이 책에서 170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겪은 경제적 변화를 대대적으로 재평가한다. 이를 통해 건국 당시에는 평등을 내세웠으나 소득 불평등 덕분에 이례적인 성장을 이룩한 아이러니한 결과를 얻게 된 과정과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다.

<목차>

1. 끊임없는 논쟁, 새로운 접근법, 더 많은 데이터, 풍성한 결과
2. 독립혁명 직전 식민 시대의 소득 수준
3. 식민 시대 정착민들은 언제부터 부자였을까?
4. 선두를 빼앗기다: 독립 혁명의 대가
5. 1800-1860, 불평등한 경제 성장
6. 남북전쟁: 성장 대신 얻은 자유, 그리고 불평등의 지속
7. 함겨루기: 19세기 후반 미국의 소득 수준
8. 전례 없는 최대 격차
9. 1970년 이후 또 한 차례 증대된 불평등
10. 불평등과 성장: 역사에서 찾아본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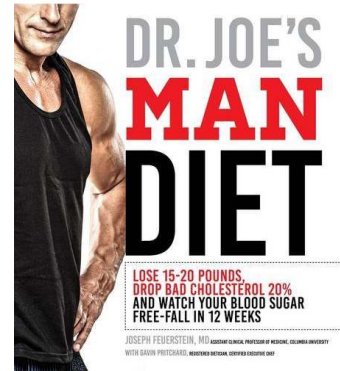
부록

<저자 소개>

피터 H. 린더트(Peter H. Lindert)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제학과 석좌 교수로 『Growing Public: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프리 G. 윌리엄슨(Jeffrey G. Williamson)은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전미 경제연구소에서 연구를 맡고 있다. 저서로 『Trade and Poverty: When the Third World Fell Behind』 등을 발표했다.

제목: DR. JOE'S MAN DIET
가제: 조 박사의 남자 다이어트
저자: Joseph Feuerstein
출판사: Page Street Publishing
발행일: 2016년 3월 1일
분량: 208 페이지
장르: 건강



체중 9 킬로그램 감량, 콜레스테롤 20% 감소, 혈당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식생활 변화 계획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진은 2014년 4월에 다소 당황스러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0년간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그런 약을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고 체중도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콜레스테롤 약이 식욕과 체중을 모두 증대시켰다고 해석해야 할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작은 알약 하나에 모든 것을 의존한 채, 내키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사는 생활 습관에 있다. 그 결과 몸무게는 자꾸만 늘어나고, 건강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콜레스테롤 한 가지에서 혈당으로 확대되고, 통풍이나 고혈압까지 따라오면서 먹어야 되는 약의 가짓수만 점점 늘어난다. 통합 의학 전문가로 7년 동안 체중, 콜레스테롤, 혈당 문제에 괴로워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온 저자는 이 모든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대적인 변화의 길을 이 책에서 안내한다. 몸무게가 자꾸 늘기만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혈당이며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우울한 결과가 나오고, 나름대로 운동을 좀 해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해봐도 몇 달 뒤에 재검사를 받으면 나아지지 않는 암울한 현실에 단단히 발목 잡힌 사람들을 위해 저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변화 전략을 제시한다.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총 12주 동안 9 킬로그램을 감량하고 혈당, 콜레스테롤, 허리 치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먼저 대사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심장질환과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이고 조기 사망의 위험성까지 높이는 이 끔찍한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2장에서는 체중과 혈압, 콜레스테롤 문제로 병원을 찾았을 때 흔히 받는 각종 검사에 대해 설명한다. 각 검사가 어떤 의미이고 결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본 뒤, 저자는 다양한 호르몬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시한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식생활 개선 계획이 소개된다. 저자가 1만 명 가량을 대상으로 직접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확인한 강력한 식생활 개선 전략이 상세히 나와 있다. 4장에서는 건강에 좋은 60여 가지 요리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레시피가 소개된다. 요리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른다는 저자가 저명한 임상 식이요법사의 도움을 받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마련한 이 요리들은 다이어트가 곧 인생의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확 뒤엎을 만큼 다채롭고 맛깔스럽다. 마지막 5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모든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소개된다. 운동, 수면습관, 스트레스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더불어 힘들게 만든 변화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2011년에는 학술지 「최신 영양식품과학(Current Nutrition and Food Science)」에, 2012년에는 「국제 통합의학연구회(International Research Congress on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된 저자의 ‘남자 다이어트’는 실제 환자들은 물론 과학적인 근거로도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건강법이다. 복잡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다이어트를 ‘무엇을 언제 먹으면 되나’라는 단순한 원칙으로 정리하여 체중도 줄이고 건강에 아무 쓸모없는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을 개선시키는 팁을 알려준다.

<목차>

1. 이건 사실입니다 - 단순하고 별로 좋지 않은 현실
2. 혈액검사와 호르몬 - 속속들이 알아보자
3. “돈” - 무엇을, 왜 먹어야 할까
4. 레시피
5. 유용한 팁 - 새로 얻은 몸을 유지하는 법

<저자 소개>

조셉 퓨어스타인(Joseph Feuerstein)은 스탬포드 병원에서 통합의학과 과장을 맡고 있으며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임상의학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비디오 블로그 ‘The MD Minute’을 통해 생활습관, 영양, 체중감량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제목 :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가제 : 그냥 살까, 떠나버릴까

저자 : Ramani Durvasula

출판사: Post Hill Press

발행일: 2015년 11월 24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처세



자아 도취에 빠진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 그 덫에서 벗어나거나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존 전략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준다고들 이야기한다. 사랑을 믿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도 한다. 과연 그럴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때로는 사랑인줄 착각하고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자신이 잘못된 관계의 덫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깨닫는 일도 생긴다. 현실을 깨닫는다고 나아지는 건 없다. 맞서 싸우고 이겨내거나 견뎌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솟구친다.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있는 기분만 들고, 약속을 해놓고도 쉽사리 깨거나 자꾸만 믿음을 배신하는 상대나 자신을 취약편력하려고 하거나 못되게 구는 상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자신만 점점 피폐해진다. 18년간 임상 심리학자로 일해온 저자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수렁이 되어 이처럼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문제는 자아도취에 빠진 ‘나르시시스트’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이 괴로운 관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준다. 그저 기다리면 좋아진다는 근거 없는 다독임이나 희망 대신, 저자는 단호한 전제로 이 책을 시작한 다. “자아도취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고 상당한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는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가지 행동이 바뀔 수는 있어도 일시적인 반응에 그칠 뿐이며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그 뿌리 깊은 특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상대가 이런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헤어지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종교적인 문제가 걸려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저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정리하든 계속 함께 살든 선택은 각자의 몫이며, 어느 쪽을 택하든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지금 자신이 만나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자아도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실제로 그가 혹은 그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대 사회에서 나르시시즘은 새로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겉은 멋있고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이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많고, 남을 마음대로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허영심과 자만심이 많고 공감을 잘 못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들은 서서히 타인

의 행복감에 구멍을 내고 정신 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위험하다. 저자는 이런 관계는 끊어내고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한다.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팁과 함께 나르시시즘의 병리학적인 특징,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점들, 두 눈 똑바로 뜨고 주시해야 하는 점들을 짚어주는 솔직한 생존 매뉴얼이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리거나 질질 끌려 다니고 소모적인 자책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대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요령을 배울 수 있다.

<목차>

시작하면서. 전갈과 백조 이야기

머리말. 여러분도 이런 경우는 아닌지?

1장. 생존 가이드

2장. 나르시즘은 새로운 경향이다

3장. 나르시스트와 이미 관계를 맺었다면

4장.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5장. 상대방의 행동

6장. 구원받으리라는 환상부터 버려라

7장. 그냥 살아야 할까?

8장. 떠나야 할까?

9장. 미래

<저자 소개>

라마니 두르바술라(Ramani Durvasula)는 임상 심리학자로 산타모니카에서 개인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NBC <투데이 쇼>를 비롯해 수많은 TV, 인쇄매체에 소개되고 출연했다.

제목 : CULTURAL TRANSFORMATIONS

가제 : 조직문화를 바꾸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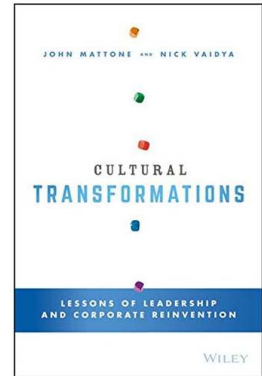
저자 : John Mattone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6년 1월 26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경영



시대 흐름에 맞는 기업이 되기위한 핵심,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

디지털화,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전 세계의 비즈니스 세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으로 탈바꿈했다. 스마트폰, 온라인 마켓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생겨나 소비자 행동 전체를 바꾸어놓는 상황은 오히려 신생 업체들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제품의 수명도 확 줄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시장 상황에서 전통적인 기업 운영 방식은 아무 쓸모 없는 지식이 되어버렸다. 한 때 뚝뚝거리며 잘 나가던 회사들이 기존의 경영 방식만 고수하다가 '변화'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해 민첩하게 대응하고 사업적인 역량을 향상시킨 업체들에게 따라 잡히는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변화는 필수 요건이 된 것이다. 과거에는 회사 구조와 문화의 대대적인 변화를 회사 전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나 필요한 긴급 구제책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회사 구조와 문화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 이미 이 사실을 깨달은 업체들이 많고, 어떻게든 회사를 바꾸어보려고 하지만 대부분이 실패를 경험한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한 업체들에 관한 자료를 보면, 처음 설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75퍼센트에 달한다. 나머지 25퍼센트의 업체들만 각자가 속한 분야의 평균치 정도에 해당하는 단기적, 장기적 성과를 이루었다. 변화는 왜 이토록 힘든 것일까? 두 저자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토대로, 두 가지 요소를 원인으로 제시한다. 바로 '문화'와 '리더십'이다. 이 책은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 노력에 성공을 좌우하는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집중 탐구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조직 문화가 기업의 성공에 부차적인 요소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성장과 변화에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체감하는 경영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직 문화의 확립은 리더십이라는 두 번째 핵심 요소와 맞물려 있다.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조직 전체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과 팀을 그러한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경영자는 변화의 가치를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대신 구성원들이 마음 깊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그 흐름에 따를 수 있도록 이끄는 리더를 찾아 조직 전 단계에 배치해야 한다. 두 저자는 HP 파이낸셜, 노스페이스, 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 등 큰 변화에 성공한 업체 열네 곳의 CEO와 직접 만나서 나눈 인터뷰에서 찾은 그 구체적인 방향을 소개한다. 이들이

리더십이 가진 잠재력을 처음 깨닫게 된 과정과 리더의 역할에 힘을 불어 넣는 방법,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과 더 발전시켜야 할 점을 객관적으로 찾아내는 방법,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법,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나 대규모 변화에 저항하려는 심리에 대처하는 법 등이 제시된다. 더불어 두 저자가 오랜 연구와 인터뷰로 마련한 '6단계 변화 전략' 모델에는 조직 문화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유용한 코칭 요령이 담겨 있다.

<목차>

머리말. 변화는 필수다

1장. 현재의 조직문화,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문화

2장.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6단계 핵심 전략

3장. 케이시 마카렐라(Kathy Mazzarella)의 사례

4장. 크리스 카네커레이튼(Kris Canekaratne)의 사례

5장. 에디 마살라니(Eddie Machaalani)의 사례

(이하 생략)

17장. 최종 정리, 작전 개시

부록 A. 현명한 리더를 만드는 20가지 법칙

부록 B. 문화 변화의 준비 수준 평가

<저자 소개>

존 마토네(John Mattone)는 리더십 컨설팅 업체 'N2Growth'에서 조직문화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CIA, 페덱스, 미국 환경보호청, 콜롬비아 대학교 등 다양한 조직과 업체와 함께 일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의 MBA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병행하고 있으며, 저서로 『Talent Leadership』, 『Intelligent Leadership』 등을 발표했다.

닉 바이드야(Nick Vaidya)는 「The CEO Magazine」의 편집자로 일하면서 2002년부터는 데이터 베이스 마케팅 업체 'Teleologies'를 운영 중이다. 영업, 마케팅, 사업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제목 : THE RETURN

가제 : 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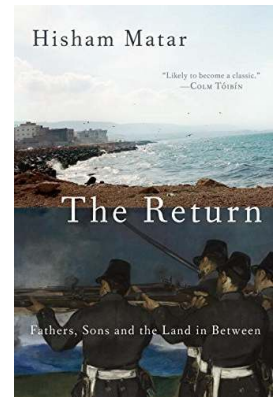
저자 : Hisham Matar

출판사: Random House

발행일: 2016년 7월 5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회고록



맨부커상 최종후보에 오른 'In the Country of Men' 작가의 신작

30년 동안 돌아갈 수 없었던 고향 시리아, 가족과 나라를 모두 잃어버린 실향민의 아픔과 희망

유명한 소설가가 된 한 남자가 2012년, 어머니와 함께 리비아 북부 항구도시 벵가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열두 살에 쫓겨나듯 떠났다가 30년 넘게 돌아가지 못한 곳,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유년 시절의 추억들이 생생한 곳, 진짜 '고향'이라 말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그 길 이 어떤 종착점에 다다를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외교관이자 군인이던 그의 아버지가 반체제인사로 낙인 찍히고 정치적 망명을 결심하면서 떠나온 시리아 땅이지만 카다피의 독재 정권이 마침내 무너지면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반가움보다 낯선 느낌이 더 강할 고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 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가 열아홉 살이던 어느 날, 카이로 거리에서 시리아 정부군 손에 납치되어 처우가 가장 혹독하기로 악명 높은 감옥으로 끌려갔다.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던 고향에 돌아가는 길, 참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 귀향이 마침내 시작됐다.

저자는 뉴욕에서 한 대학의 초청으로 학생들에게 소설에 관한 강의를 했던 2011년 가을까지만 해도 자신이 리비아 행 비행기에 오를 일이 생기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한다. 저자가 태어나기 전에 UN에서 근무하던 아버지는 1970년 봄, 어머니와 함께 새로 발령 받은 맨해튼으로 왔다. 그 해 가을 뉴욕에서 저자가 태어났고, 1973년 부모님과 함께 트리폴리로 돌아갔다. 좋았던 시간들도 잠시, 저자가 여덟 살 때 리비아를 떠나야 했던 가족들은 30여 년을 타국에서 떠돌았다. 탈출 직후인 1979년에는 나이로비에 머물렀고, 이듬해에 부모님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었던 망명 기간을 카이로에서 보내기로 하고 그곳으로 옮겨갔다. 이후 저자는 열다섯 살에 학업을 위해 런던으로 다시 생활 터전을 옮겨서 26년 동안 낯선 영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소리 없는 투쟁을 매일 같이 이어나갔다. 런던 생활에 신물이 난 저자는 30대에 접어들자마자 다시는 영국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파리로 건너갔지만 고작 2년 만에 다시 런던으로 돌아갔다. 태어난 곳은 미국, 생활한 곳은 세계 곳곳인 저자는 처음 만난 사람이 "어디 출신이세요?"라고 물으면 항상 뉴욕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도, 사실도 아닌 자신의 대답에 속으로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에게 진짜 고향은 오직 한 곳, 시리아 뿐이었다.

시리아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눈 앞에 펼쳐질지 함께 가는 어머니도, 저자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독재 정권은 무너졌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을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실지 알아낼 단서도 없었다. 저자는 고향의 변해버린 모습과 풍경을 눈에 담으며 아버지의 행방을 쫓기 시작한다. 카이로에서 잡혀간 아버지가 머물렀다는 감옥은 이제 텅 비어버렸고, 객관적으로 아직 살아계실 확률은 아직 희박했지만 ‘끈질기고 교묘한’ 희망은 저자에게 자꾸만 더 움직여보라고, 찾아보라고 속삭였다.

삶의 커다란 부분을 잃어버린 한 가족의 기억을 더듬는 이 따뜻한 회고록은 온 나라를 덮친 급작스러운 변화에 희생 당한 죄 없는 국민들에 관한 자화상이자 절대 권력을 원했던 무자비한 인물이 만든 괴물 같은 나라의 무서운 영향력을 생생하게 그린 기록이다. 도망칠 수 밖에 없었던 고향 땅, 그곳에서 다시 진실을 찾아가는 저자의 발걸음에서 사랑, 희망, 상실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목차>

1. 트랩도어
 2. 까만 정장
 3. 바다
 4. 땅
 5. 블로타(Blo'thaah)
 6. 시
 7. 건강 상태는? 가족들은?
 8. 휴전, 그리고 클레멘타인
 9. 노인과 그의 아들
 10. 깃발
 11. 마지막 밤
 12. 뱅가지
- (이하 생략)

<저자 소개>

히şam 마타르(Hisham Matar)는 뉴욕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트리폴리와 카이로에서 보냈다. 데뷔 소설 『남자들의 나라에서(IN THE COUNTRY OF MEN)』(국내 2009년 번역 출간)는 전 세계 28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저자에게 수많은 상을 안겨주었다. 이 작품으로 맨부커 상 최종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1년에는 두 번째 소설 『ANATOMY OF A DISAPPEANCE』를 발표했다.